

아침세평

박 병 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미래의 우리 사회는 어떨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찾아면 될 것이다.

얼마전 끝난 일본에서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깃털처럼 가벼운 언행으로 최고의 성취를 이뤄내고도 큰 사회적 파장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몇몇 선수들이 보인 경거망동은 그들의 마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과정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인성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자랑으로 삼은 병역면제 특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다. 이들의 헌신과 국위선양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정이 전제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이 받은 병역면제는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또 다른 책무이다.

따라서 이들이 표현했어야 할 이야기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야 했다. 생각을 조금만 깊이하고 인성을 갖췄다면 미안함과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우러났을 것이다.

서울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있었던 탱크레이 응원은 어떤가?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인성교육의 부재 말이다.

기고

최 민 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전남권역본부장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상황은 평온한 일상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가족이나 이웃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급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할 수 있을까.

심정지는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현상이 아니다. 심장의 혈액순환 기능이 상실되면서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응급상황이다. 특히 심정지 발생 직후 4~5분은 생존과 뇌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맥인 심실세동(VF)은 심장의 심실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때 신속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제세동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응급처치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구급체계를 갖추더라도 구급대원이 모든 심정지 현장에 즉시 도착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생명을 살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전문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이 아닌, 환자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평범한 시민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나주시와 소방이 함께 추진하는 ‘심장안전도시 구축사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와 나주시, 대한심폐소생협회, 나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함께하는 심장안전도시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지

야차룰과 인성교육

한편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6년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였다. 작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형태로는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중에 야차룰이라는 것이 있다. 야차는 불교 용어로서 팔부의 하나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나운 귀신으로 설명된다. 최근에는 거칠고 위협적인 사람을 뜻한다. 혹은 싸움이나 대결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회의 밑바닥에서 수면 위로 솟아오르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현상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이 그랬다.

한 상담자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한 명 한 명을 만나다 보니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이를 곧 공론화시켜 집단따돌림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요즘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비행은 그 수법이나 강도로 볼 때 성인 범죄 못지 않다.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들 마음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야차룰이 그렇다. 야차룰은 유튜브 채널 야차룰럼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채급이 없이 글러브를 끼지 않고 맨주먹으로 맞짖을 뜨는 혈투다. 물론 사전에 어떤 상하나 피해를 입더라도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서로 작성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규칙이 없는 맞짖 혈투이다.

지역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의 야차룰 등 신종학교폭력에 대한 심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야차룰’ 등으로 심의가 이뤄진 학교폭력은 광주 55건, 전남 15건으로 밝혀졌다. 광주는 2024년 17건에서 작년도에는 2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벌써 17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야차룰 같은 신종학교폭력은 중학생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학생도 중학생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야차룰의 암묵적 규칙인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 폭행이 합법적 경기로 바뀌지는 않는다.

상담자로서 경험한 야차룰 뒤에는 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 야차룰이 발생하는 곳은 교실 뿐만이 아니다. 야차룰을 방자해 함있는 아이들이 함있는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폭행 후에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후 신고를 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금메달만 손에 움켜쥐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결과중심주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아이들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통한 인의예지를 가르쳐야 한다. 온고지신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생명의 기적을 만드는 ‘심장안전도시 나주’

역사회 중심의 생명안전 프로젝트다.

단순히 응급의료 장비를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심정지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시민 참여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인증 교육체계를 활용해 지역 곳곳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나주소방서는 지역 경찰과 협력해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하는 등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장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는 시민 생활권 곳곳을 이동하는 순찰차가 응급상황에서 또 하나의 생명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심장안전도시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시민의 참여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구급대 도착 전에 실시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응급처치다. 가슴압박을 통해 뇌와 심장으로 최소한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사용하면 생명을 되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이 모든 응급의료 지식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는 없다.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는 가슴 중앙을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약 5~6cm 깊이로 압박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시민의 생명구조 활동을 뒷받침한다. 119상황요원은 신고

자의 설명을 토대로 심정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한다. 필요시 영상통화를 활용한 응급처치 지도도 이뤄진다. 시민의 두 손이 멈춰야 하는 생명을 지키고, 119의 전문적인 지도가 그 행동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강조하는 ‘생존의 사슬’과도 맞닿아 있다. 심정지의 신속한 인지와 신고, 초기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전문소생술, 심정지 후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나주시 심장안전도시 구축사업은 바로 이러한 생존의 사슬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는 시도다. 시민은 심정지를 초기에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소방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담당한다. 여기에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의용소방대, 경찰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힘을 보태 하나의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심장안전도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된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자동심장충격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민과 소방이 하나의 생명구조 체계로 연결되는 도시다.

기술과 장비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기술을 실제 생명의 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다. 누군가의 심장이 멈춘 순간, 시민의 두 손이 움직이고 119의 전문성이 더해진다면 그곳에서 생명의 기적은 시작된다. 나주에서 시작된 심장안전도시의 도전이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돼,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구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서둘러야

올 연말 완공기로 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 자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확 늘면서 준공 시점이 2028년으로 2년가량 늦춰질 예정인데다 공사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서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 4만512㎡ 부지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옛 광주시민들과 전남 북부권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 됐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이 전남광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나주와 광양 두 곳밖에 없어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정차권과 옛 광주시가 적극 나서 관련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비 370억원을 투입,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2023년 11월 토목공사를 진행했지만 토지 매입 과정의 수율제결, 연약지반 보강 공사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와 건설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 8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 겨우겨우 증액된 사업비를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또 국제 정세불안으로 기자재 조달과 물류 차질 등이 이어져 35억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사업비가 계속 불어난 이 사업은 결국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였던 본청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축소하고 연면적도 당초 4018㎡에서 3035.4㎡로 982.6㎡ 줄어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관련 예산 역시 21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준공 시점도 2028년으로 늦춰진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말까지 본청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 요청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나 건물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지역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경쟁력 약화 농공단지 살릴 대책 절실하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해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돼 40년 넘게 농어촌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시설 노후화와 인구 감소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전국 농공단지 486곳중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는 74%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북이 60곳중 49곳(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단지 주변의 주거·교육·의료·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생활기반을 유지하기 힘들게 해 인력 유출을 가속화시켜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전체 농공단지중 319곳(66%)이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여서 생산 설비 교체부담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까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들이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정부는 스마트그린산단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주요 사업에 있어 농공단지의 공모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대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규모와 역량면에서 국가·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단 등에 뒤처지는 농공단지는 공모형 지원사업에서 번번이 밀릴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이들 산단과의 경쟁을 통해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 선정과 예산배분 과정에 농공단지 우대 장치를 마련해 대도시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부 등이 정부 부처별 사업과 연계해 농공단지 전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농공단지에 특화된 지원체제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농업 가공이나 웰니스 관련 산업 등 특화 업종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명인	차재진	사 장 정영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370-7200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